

(국내)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 출판사, 1994.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0.

존 칼빈, 『주석집』 고린도전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신앙고백집」 서울: 경원사.

오윤형, 「칼빈의 성화론 이해」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1.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단회성에 관한 R.E. Griffin 교수의 견해와 그 문제점”, 『성령론』, 1994.

김영한, “개혁신학의 성령론,” 기독교학술원심포지움, 1993, 12월.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조석만, 「기독교회의의 본질과 제도」 도서출판 잠언, 1999.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마틴 루터, 「갈라디아주석」 40. 1, 12.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5.

## Kant에 의한 Newton 물리학적 세계관의 철학에로의 도입과 서양 신학\*

한철하(ACTS 명예총장)

### I. Kant는 Newton의 물리학적 세계관을 어떻게 철학에 도입하였으며, 서양 신학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1. Kant는 Cartesian 철학에 입각한 종교론자요, 계몽사조 운동가로서 불 신앙의 구조를 사상체계 속에 도입한 첫 사상가이다.

Immanuel Kant(1724-1804)는 세 가지 점에서 19세기, 20세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신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으로 Cartesian 철학자 종교론자로서 Descartes의 “자아” 속에서 철학과 종교를 세웠습니다.

둘째로 Kant는 “교회, 성경, 왕권” 등의 모든 “권위(authority)”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는 “계몽사조(Enlightenment)” 운동가로서 “신앙”으로써가 아니고 “이성”으로써 신학 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셋째로 그는 또한 Newton 물리학의 태양 중심의 세계관을 신학에 도입함으로써 무신론적 세계관을 신학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신학이 상대로

\* 본 논문은 한철하박사의 “21세기 인류의 살길”(칼빈아카데미, 2016)에 게재된 글임.

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추방하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Kant가 어떻게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을 그의 “철학체계” 속에 도입하고, “신학”을 “불신앙”의 신학으로 만들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Barth를 포함한 19세기,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전부 Kantian 오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Kant는 「순수이성비판」에서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을 도입하였다.

Kant는 그의 “순수이성비판(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Newton 물리학의 세계의 “공간과 시간”을 그대로 “직관의 형식(die Form der Anschauung)”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관의 형식”을 통하여 “주관” 속으로 들어오는 “잡다(雜多)”에 대하여 12 “범주(Kategorie)”의 “오성 개념(Verstandesbegriff)”으로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범주(Kategorie)”들도 Newton 물리학을 구성하는 원리들입니다.

예컨대 굴뚝에서 “연기”가 “직관의 형식” 즉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주관” 안으로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선험적 통각(transzendentale Apperzeption)(I think)”은 12 Kategorie 중 “인과율(Kausalität)”을 적용하여 “불(火)”이 저기에 있음을 추리하며,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proof)”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인과율”을 적용하여 그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추론하는 논증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세상”을 “결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천부”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Kant는 이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의 형식” 즉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주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ant의 “순수이성비판”은 세 부분으로 됩니다. 즉 “감성론(Aesthetic)”과 “분석론(Analytik)”과 “변증론(Dialektik)”입니다. 그는 첫 두 부분 “감성론”과 “분석론”에서 먼저 Newton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고 나서, 셋째 부분 “변증론”에서 모든 유신 논증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수이성비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두 부분과 셋째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 Newton 물리학을 구성하고, 후반부 “변증론”에서 유신 논증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의 세계의 실재성을 완전히 박탈하였던 것입니다.

## 3. Kant는 그의 전 철학체계를 현상계(phaenomena)와 예지계(noumena)의 2층 구조로 만들었다.

위의 사실을 Kant의 철학체계 전체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Kant는 위에서 “감성론”과 “분석론”의 영역과 “변증론”의 영역을 2층 구조로 만들어 아래층 즉 “감성론-분석론”의 층을 “현상계(phaenomena)”라 하였고, 윗층 즉 “변증론”의 층을 “예지계(noumena, 叡智界)”라 불렀습니다.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는 “예지계”의 영역에서는 유신 논증을 부정하는 일들만 하였으나 그 후에 그의 저술에서 “예지계”의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Kant는 “순수이성비판(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에서 “현상계(phenomena)” 즉 Newton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였고, “실천이성비판(Die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에서 “도덕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의 “판단력비판(Die Kritik der Urteilkraft 1790)”에서 “미와 숭고”의 세계를 구성하였고, 또한 “유기체(식물, 동물,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기 목적적” 성격을 가지는 “유기체”들은 “현상계”의 “기계적 원리(mechanical principle)”로 산출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 계획자(Supernatural Designer)”의 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신학에로의 전이”를 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

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1791)』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Kant는 “창조론”, “원죄론”, “기독교론”, “회개론”, “교회론” 등을 논합니다.

이 종교론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만 “이념(Idee)”뿐이란 점입니다. 가령 그리스도는 “die Idee der moralischen Vollkommenheit(도덕적 완전성의 Idee)”입니다. “이념”은 “존재”와 무관하나 “규제적 사용(regulative use)”에는 유용합니다.

둘째로 “종교론” 전체가 “도덕”이란 단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도 “도덕적 완전의 Idee”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론” 마지막의 맺는말이 중요합니다. 참된 종교는 “Gunstwerberei(신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Moralische Religion(도덕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말소함으로써, “기독교 종교”의 핵심 요소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소하고 “자기 구원주의(autosoterism)”로 떨어집니다. 또한 “도덕”이란 한 “개념”으로 “기독교종교” 전체를 통일하는 “환원주의 신학(reductionism)”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Schleiermacher, Ritschl을 위시하여, Barth와 모든 서양 신학자들이 오늘날 까지 이 Kant의 “불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Kant는 위의 모든 것을 “이성”(Vernunft)의 한계 안에서 논합니다. 이성의 “구성적 사용”(constructive use)으로 Newton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성의 “규제적 사용”(regulative use)으로 “도덕계”, “미와 숭고”, 그리고 “자연의 자기 목적(Naturzweck)”의 세계, 마지막으로 “종교”를 구성하였습니다. Newton 물리학의 “현상계”(phaenomena) 위에 “예지계”(noumena)의 영역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재” 하는 유일의 세계는 “현상계”(phaenomena) 즉 Newton 물리학의 세계뿐이고 “예지계”(noumena)의 세계는 Newton 물리학의 세계에 대한 “규제적”(regulative) 역할을 할 뿐이며 아무 실재성도 가지지 못합니다.

## II. Kant 철학의 현상계(phaenomena)- 예지계(noumena)의 2층 구조의 현대 신학에의 영향

Kant 철학의 불신앙의 구조는 그 후에 모든 신학에 전수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 1.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

Hegel은 대륙의 관념론 철학의 대성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섭니다. 그는 세계사를 세계정신(Weltgeist)의 자기발전(Selbstentwicklung)으로 보며 정-반-합(thesis-antithesis-synthesis)의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한 단계의 논제(thesis)에 반대되는 논제(antithesis)가 대립될 때 종합하는 논제(synthesis)로 상승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Hegel은 독일어로 Geben-Hingeben-Aufgeben이라 불렀습니다. 세계사의 목표는 “인간 자유의 구현”입니다. 한 국가 내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음으로 “법”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동양 사람은 한 사람만이 자유임을 알았고, 헬라의 귀족 정치 하에서는 몇 사람의 자유임을 알았고, 그러나 독일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유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 Fichte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독일 민족주의를 잘 대변합니다. 결국 “Deutschland Über Alles”의 Hitler의 망상의 예표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Hegel은 Kant 못지않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론자”이었습니다. Kant가 그의 「종교론(Die Religion)」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원죄론(radikale Böse)”, “기독교론”, “회개론”, “교회론” 등을 논한 것처럼, Hegel은 “세계정신(Die Weltgeist)” 즉, “하나님”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자기발전(Selbstentwicklung)” 함을 논했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의 시대”, 교회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역사철학 서론(Die Einleitung zur Geschichtsphilosophie)」에서 이 세계사관을 확대하여 모든 민족사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어느 민족 속에서도 “세계정신”은 그 시대의 영웅에 “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 자기를 구현시켜 그 시대의 민족 문화를 꽃피우고 그 영웅이 사라짐과 함께 그 문화의 폐허만을 남겨놓고 소멸됩니다. 그리하여 후대에 사학자들이 그 문화 유적을 탐방하여 과거에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를 회상하면서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보는 견해는 사실 후에 Toynbee의 21개 문화 사회(civilization societies)의 세계문화사(世界文化史)로서 본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의 정신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Kant의 불신앙의 2층 구조를 우리는 Hegel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정신”의 “예지계” 밑에 있는 “세계사”의 “현상계”는 Newton 물리학과 다름없는 것이며, “신앙”과는 무관한 세계입니다. Karl Marx(1818-83)의 세계사관은 Hegel의 정-반-합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그대로 받았고, 다만 “정신사관”을 “유물사관”으로 뒤집어 놓은 차이뿐입니다. Marx는 사회를 상부구조(Überbau)와 하부구조(Unterbau)의 2층 구조로 보았고, 자본가와 지주의 착취 계급과 노동자와 농민의 피착취 계급을 구분합니다. Marx 이후에는 Kant의 2층 구조가 뒤집혀 나타났습니다. Heidegger의 Sein과 Dasein의 2층 구조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Tillich는 하나님을 밑바닥에 깔고 “존재의 근거(Ground of Being)”라고 불렀습니다.

## 2. Martin Heidegger(1889~1976)

Heidegger의 「Sein und Zeit(존재와 시간)」은 그대로 Kant의 2층 구조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부는 인간이 자기의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의 층, 즉 “존재(Sein)”에서 나와서 실존하는 세계의 층, 즉

“현존(Dasein)” 속에서 “자기 상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In-der-Welt-Sein(세상 내적 존재)”이라고 하며, 여기서 인간은 “Gewolfensein(던져진 존재)”으로 봅니다. 이 “던져진 상태(Gewolfenheit)”는 사실 Marx 못지않은 불신앙적 “세계관”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Heidegger의 Sein이나 Dasein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무신론적” 철학자입니다.

Heidegger의 실존주의 철학을 그대로 채용하여 신학화한 신학자가 Paul Tillich(1886-1965)입니다. Tillich는 신은 “존재의 근거”(the Ground of Being)로서 그 기초 위에 인간은 “자아와 세계”(Self-World)로서 “본질적 존재”(essential)로 있으나, 거기서 “실존”(Existence)으로 “전이”(轉移, transit)하면, 실존의 네 가지 형식,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과 “자기 동일성”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번민”anxieties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지나가 버리는 번민”(anxiety of transitoriness) “있을 곳 없는 번민”(anxiety of spacelessness) 결국 묘지 한 장만 남김, “우연적 존재로서의 번민”(anxiety of contingency), “자기 동일성 없는 번민”(anxiety of identitylessness)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New Being)”에게 용납될 때 이 모든 번민들을 치유 받아서 “새로운 존재”(new being)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Kant의 2층 구조를 뒤집어 놓은 Heidegger의 철학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 3. Karl Barth(1886~1968)

Barth는 기독교종교를 누구 보다는 깊게 이해한 서양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Kant의 Newton 물리학의 비종교적 성격을 충성스럽게 견지하려고 결심하고, Anselm의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proof)은 수용하나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proof)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문제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까지 합니다. Barth가 Kant의 2층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시간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Gotteszeit)과 “인간의 시간”(Menschenzeit)의 2층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시간”(Offenbarungszeit)을 셋째 시간(Dritte Zeit)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시간은 사실상 공간을 가지지 못하며, 이것을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접촉점”(tanzent)과 같아서 “변증법적”(dialectical)이라고 하였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시”가 사실로 “역사적 계시”인가가 문제입니다. 계시가 역사적 계시가 아니라면 의사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으셨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인가?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셔서 조반을 먹게 하신 일을 “제삼 시간” 속에서 된 일이라면 사도 요한도 거짓말하는 것인가? Barth의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비판한 신학자는 G.C. Berkouwer라 하겠습니까. Barth에 있어서는 “창조자 하나님은 있으나 창조는 없다”. 이것이 모두 기독교종교와 배치되는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을 신학에 도입한 결과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Barth는 Kant의 충성스러운 충복(忠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arth의 신학을 끝까지 끌고 간 신학자는 Dietrich Bonhoeffer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차대전 중 Hitler에 체포되어 옥중 서신 「제자도의 값(The Cost of Discipleship)」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는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non-religious interpretation of the Gospel)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의 인간을 “성숙한 인간”(man come of age)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간은 “하나님 없이”(without God)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Newton 물리학의 세계는 모든 것을 “과학”에 의지해서 살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Kant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신 죽음의 신학”(The Theology of Death of God)의 선구가 된 것이 아닙니까?

### III. Einstein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에 의한 Newton 물리학적 세계관의 붕괴

1. 위에서 우리는 Kant가 어떻게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을 도입하여 그 철학체계를 “현상계”(phaenomena)와 “예지계”(noumena)의 2층 구조로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성”의 “구성적 사용”(constructive use)을 통하여 “현상계”(phaenomena)의 세계 즉 Newton 물리학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 위에 그의 “제이 비판”, “제삼 비판”, “종교론”을 통하여 “예지계”(noumena)의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지계(noumena)의 영역은 “이성”의 “규제적 사용”(regulative use)을 할 뿐이고, “실제”는 “현상계”(phaenomena) 즉 Newton 물리학의 세계가 가질 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Newton 물리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영원불변”한 “자연법칙”만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Kant 철학과 자연법칙이 초래한 “불신앙”의 전통은 19세기, 20세기의 모든 Kantian 신학이(Barth 신학과 실존주의적 신학을 포함해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신학은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을 “신학 체계” 속에 도입 하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2.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Einstein의 상대성 원리”와 Max Planck 등의 “양자론”으로 인해서 “절대불변”의 “영원한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왔던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세계관 위에 세워졌던 19세기, 20세기의 Kantian 신학이 “잘못된 진리 체계” 즉 “허위의 신학체계”로 판명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로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물리학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lbert Einstein(1879-1955)은 그의 상대성 원리(relativity principle)에서 Newton 물리학의 태양 중심의 세계가 절대 불변한 세계임이 허구임을 입증하였습니

다. 그가 발견한 것은  $e=mc^2$ 입니다. 즉  $m$ (matter 질량)은  $c$ (빛의 속도) 제곱으로 달리면 에너지화 되고 그 질량이 energy로 되어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령 1kg의 쇠덩이를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 제곱의 속도로 달리게 하면 에너지로 변하고 즉 그 “쇠덩이”가 energy로 변하여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Newton 물리학의 “질량불변”의 법칙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Einstein 이후에 발달하는 양자물리학(quantum mechanics)은 Newton 물리학의 세계의 기초를 이루는 “양자의 실재” 핵스는 우주탄생을 설명하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의 모순해결 실제로 우주전체 질량중 현대물리학으로 설명되는 것은 4%의 세계를 과학화 하였습니다. “양자(quantum)”는 “energy”의 최소 단위로서 이 양자의 세계가 사실적으로 Newton 물리학의 세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세계가 더 확실한 실재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에는 “불확실성의 원리(uncertainty principle)”가 지배하여, Newton 물리학의 “자연계에 대한 관찰의 정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의 토대 위에 신학을 세우는 일이 불가함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물리학” 자체가 “Newton 물리학의 세계”가 “절대불변의 세계”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진 Kant 철학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ant 철학이 구성해낸 Newton 물리학의 세계가 영구불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Newton 물리학을 영구불변의 실재계 즉 “현상계”(phenomena)로 만들고 그 위에 “예지계”(noumena)를 세우는 전 철학체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 IV. 과학과 세계관

1. Kant 때만 해도 “과학”이 항상 발전하고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Newton 물리학이 영구불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Kant는 그의 과학을 Newton 물리학에 비추어서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과학”은 그 “대상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관찰한 “data”들을 수집해서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때 그것을 “가설”로 하여,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data”들이 나오면 그 “새 data”에 따라서 앞서 세운 “법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국 경험철학의 대표자들 Hume이나 Russell 등이 말하는 대로 “자연법칙”은 “개연성”(probability)뿐이란 회의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법칙”의 “적용 범위” 속에서 “항구적인 법칙”으로 봄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위(unit)”가 확대되든가 하여 달라질 때 법칙도 또한 변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Calvin의 과학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Calvin은 “과학”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Kant가 Newton 물리학을 도입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은 Newton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과학”으로써 이용하여야 하며 그것을 “세계관화”하여 “철학”에 도입하든가 “신학”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Newton 물리학이나 천문학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공을 세웠습니까? 20세기에 들어서서 “극미(極微)”의 세계가 파헤쳐져서 유익을 주고, “논리”의 세계가 개발되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인류는 아직도 Newton 물리학, 천문학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Newton 물리학이나 천문학은 그대로 “과학”으로 그 유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세계관화”해서 “불신앙”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Calvin의 “과학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V. Calvin의 과학관

Kant는 “이성”을 비판한 탁월한 철학자 이었습니다.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종교”등 “이성”의 다양한 사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식 비판”에 있어서 Calvin은 Kant를 능가합니다. Calvin은 III.2에서 인간의 “인식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 “감정” 등 “정신기능” 전반에 걸쳐 “철학적 탐구”, “신학적 규명” 등 광범위하게 논합니다. 그 중 “과학”에 관련된 “정신기능”은 “지성”(intellectus)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대하여 Calvin은 먼저 Augustine의 분류를 따라 “자연적 은사”(the natural gifts)와 “초자연적 은사”(the supernatural gift)로 나눕니다. “초자연적 은사”는 “하늘의 사물들”(heavenly things)에 대한 은사로서(1) 하나님에 대한 지식,(2)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사랑,(3)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의 지식입니다. “자연적 은사”는 “땅의 사물들”(earthly things)에 대해서인데 “정치”(government), “경제”(household management), “기술”(the mechanical skills), “인문”(liberal arts) 등입니다. “초자연적 은사”는 타락과 더불어 박탈 당했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 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어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게 합니다. Calvin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자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 VI. 과학과 기독교 세계관

### 1. 과학을 세계관화 함은 불가하다.

우리는 위에서 Kant가 Newton 물리학과 천문학을 세계관화 하여 자기의 철학체계 속에 도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신앙”이 그의 사상체계 속에 들

어오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Kantian 신학이 불신앙에 떨어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세계관화 하여 “신학”에 도입함이 불가함을 말합니다. “과학”은 언제나 고유의 “대상”이 있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해서도 고유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이 다 한 단위(unit)의 “분야”를 가집니다. 가령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생리”의 분야를 다룹니다. “심리학”은 인간에 대해서 “심리” 분야를 다룹니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은 자기 고유의 단위 안에 논리 체계를 “학문”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고유의 단위 분야를 넘어서 “세계관화”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뉴턴 물리학”이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나 “물리의 분야”를 넘어서 “세계관화 함”은 불가합니다. 뉴턴의 “천문학”은 태양계 중심의 “우주관”을 가짐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지구 중심의 우주관의 한계를 떠나서 확대된 우주관의 시대에 피조계에 대한 우리의 신앙 지식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관”(cosmology)을 “세계관화”(world view)하여 철학이나 신학에 도입함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관”이란 말을 “우주관”과 구별해서 “철학적 내지 신학적 의미”가 첨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주께서 물리, 논리, 수학, 기타 학문의 도움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업적과 사역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도움을 받자.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학문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공의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II, 2:16)

if the Lord has willed that we be helped in physics, dialectic, mathematics, and other like disciplines, by the work and ministry of the ungodly, let us use this assistance.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와 같은 학문들이 가지는 “신앙적 위치”의 문제입니다 Calvin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 생활

(earthly life)을 위한 “도움”으로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Calvin은 이와 같은 세속 학문들을 가장 탁월한 도우심 “most excellent benefits”라고 하였고, “성령께서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여 주셨다(distributed to whomever he wills, for the common good of mankind)”(II, 2:16)고 합니다.

Calvin은 참으로 “과학”이 무엇인가를 바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① “지상의 사물들”(earthly things)에 대해서입니다. ② 그것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이와 같은 “신학적 위치”에서 이탈시켜 “철학”에 도입하며, “신학”에 도입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Kant가 Newton 물리학을 세계관화 하여 그의 철학에 도입함으로써 불신앙에 떨어지며 19세기, 20세기에 그를 따른 “자유주의 신학”이 Kant와 함께 불신앙의 오류에 빠진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2. 기독교 세계관은 풍족한 자연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위에서 Calvin이 말하는 대로 “땅의 사물들”(earthly things)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사물들(heavenly things)”도 포함됩니다. “땅의 사물들”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단순한 경험계” 즉 우리를 둘러싼 “자연계”를 말합니다. 이 땅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이고,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식물, 동물,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이와 같은 “자연계”가 창조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Calvin은

이 우주에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시기 전에는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신데 대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한다.(I, 14:2)

고 합니다.

해와 별들의 운행을 인간이 이용토록 하시고, 땅에는 물과 공기와 생물로 채우시고, 풍족한 열매들을 식물로 충족케 하심을 볼 때 마치 배려 깊고 부지런하여 책임 다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선하심을 나타내신다.(Ibid.)

고 함으로 참 진리를 가르칩니다.

## 3. 아름답고 오묘한 솜씨로 가득 찬 이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은 “하나님”이 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빈 하늘”에 홀로 계시는 것(solus Deus)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늘들”이라고 가르치고, 또 “하늘들을 가득 채우는 천사들을 위시한 각양 인격적 존재자들”을 “천국”이라고 총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요 관심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피조물들과 인간”입니다. 아니 인간과 그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 “첫 하늘”과 “거기에 충만한 해와 달과 별들”이 인간의 “자연환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Calvin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만 보지 말고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보라고 강하게 가르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Newton 물리학을 세계관화 한 Kant 철학에서 떠나서 Calvin이 가르치는 이 우주에 가득 찬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즉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 때부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즉 “하나님의 영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8:1,9). Calvin의 『Olivetan N.T. 서문(1534)』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송합니다.

노래하는 작은 새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짐승들은 그를 찾아 소리 지르고, 원소(elements)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신들은 그에게 산울림하고, 샘들과 흐르는 물은 그에게 눈을 던지며, 풀과 꽃들은 그 앞에서 웃음 짓는다.

For the little birds that sing, sing of God; the beasts clamor for him, the elements dread, the mountains echo him, the fountains and flowing waters cast their glances at him, and the grass and flowers laugh before him(L,C,C. XXIII, 60)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영원하심에 대한 증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Calvin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옷 입혀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안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형상으로 옷 입히사 그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로 관조(觀照)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귀에 들리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으로 그를 옷 입혀 드리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으로 우리의 학교를 삼자.

For God by other means invisible, he clothes with the image of the world, in which he himself present himself to our contemplation. Therefore, as soon as the name of God sounds in our ears, or the thought of him occurs to our minds, let us clothe him with this beautiful ornament; and let the world become our school if we desire rightly to know God(LCC. Com. Gen, 60)

## VII. [총괄]:-

### 1. 창1:1, 모든 신학의 진위의 표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모든 “신학”의 “진위(眞僞)”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Calvin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판가름하는 표를 나타내셨다.(Even 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of all things, Scripture by unmistakable marks distinguishes the true God from false gods( I,14의 제목)”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신학이 “바른 신학”이고 잘못 가르치는 신학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Calvin은 이 “창조론”(I,14)을 아래와 같은 말로 매듭합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동시에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은,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 베풀었다는 것과, 참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그의 신실하신 보호 아래 받으사 양육하시고 교육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서만 받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를 완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그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원하든지 그에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토록 선하심과 도우심의 단맛에 이끌리어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그를 찬송하자.(I,14:22)

Calvin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로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

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God as our Maker supports us by his power governs us by his providence,  
nourishes us by his goodness, and attends us with all sorts of blessings  
(1,2:1)

라고 합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와 같이 긴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실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가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25-32)고 가르치십니다.

Calvin이 가르치는 것이나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철학적으로 한마디로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proof)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새나 백합화나 우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를 부인한 첫 철학자가 Kant입니다.

(1) Calvin은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당하는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길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Calvin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2) 그러나 Kant는 뉴턴 물리학을 세계관화 하여 Calvin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Kant가 만든 현상계-에지계의 불신앙의 구조는 그대로 서양 신학에 답습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

다.

(3) 그러나 Newton 물리학의 세계관은 Einstein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물리학에 의하여 붕괴되었으며, 이것은 Kant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모든 서양 신학의 불신앙 구조 현상계-에지계의 2층 구조가 무너짐을 말합니다. 동시에 “과학”의 “발전하는” 본질적 성격이 “과학”을 세계관화 하는 것이 불가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4) 그러므로 “과학”은 Calvin이 가르친 대로 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주시는 “선물”이며 ②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5) 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며, 아름답고 오묘한 숨겨져 가득한 이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